

## ICOLD 부총재 활동 회고



윤용남  
(주)이산 상임고문/고려대 명예교수

### 1. 서언

1972년 1월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마친 사단법인 한국대담회가 금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40여년동안 한국대담회는 국내 댐의 설계와 건설 관련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고 미래에도 우리나라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에 큰 역할을 할것으로 믿으며, 지금까지의 한국대담회의 역할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

한국대담회는 1972년 4월 호주 칸베라에서 개최되었던 84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대담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ICOLD)의 제40차 연차회의에서 ICOLD의 6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승인되어 지금까지 댐 관련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해왔으며, 2004년

5월에는 ICOLD 제72차 연차회의(Annual Meeting)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ICOLD 커뮤니티내에서도 비중있는 위치를 인정받고 있다.

필자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ICOLD의 2004년 제72차 연차회의에서 부총재(Vice-President)로 선출되어 2004년 4월~2007년 6월까지 약3년간 ICOLD를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 기간동안 가졌던 ICOLD 부총재로서의 활동을 회고해 보기로 한다.

### 2. ICOLD의 조직구성과 임원의 선출 및 역할

#### 2. 1 ICOLD의 조직구성

ICOLD의 정관(Constitution) 제 V 장 조직(Organization)에서는 ICOLD가 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임원(Officers), 중앙사무국(Central Office), 집행위원회(Executive Meeting), 기술위원회와 행정 혹은 특별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and Administrative or Special Committees), 공공집회 혹은 총회(Congress), 연회비 및 헌금(Subscriptions and Contributions)제도 등을 두어 ICOLD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2 ICOLD의 임원의 선출과 역할

ICOLD 정관 제VI장 임원(Officers)에서 ICOLD의 임원은 총재(President)와 6명의 부총재(Vice-President),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재무관(Treasurer)등 9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임원회의는 ICOLD 이사회의 역할을 하게된다. 이들 임원은 임기에 맞추어 매년 개최되는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무총장과 재무관은 겸임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임원회의(Officers Meeting)는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으로 구성되며 이사회(Board Meeting)의 역할을 한다.

#### 1) 총재(President)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으며, 매3년 마다 개최되는 총회(Congress)에서 회원국(Member Countries) 대표들의 투표에 의해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며 재선은 허용되지 않는다. 총재는 ICOLD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사무국의 사무총장의 보좌를 받아 ICOLD의 회무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을 진다.

#### 2) 부총재(Vice-President)

부총재 6명의 임기도 3년으로 되어있으나 매년 개최되는 집행위원회에서 2명의 부총재가 총재의 선출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해마다 부총재단 구성이 바뀌도록 되어 있으며, 부총재로의 재선은 허용되지 않으나 총재후보로서의 자격은 유지된다. 또한, 동일한 국가로부터 총재와 부총재가 동일 기간에 동시에 선출될 수는 없게 되어있다.

ICOLD 정관(Constitution) 제VI장에서는 회원국의 전 지구적 지리 분포를 고려하여 부총재 6명이 대륙별로 안배되는 방향으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ICOLD 운영규정(By-Laws)의

Part I, Section C에서는 지리 분포를 고려하여 선출해야 할 부총재의 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Europe (Russia, Turkey, Cyprus 포함) : 2명
- Asia : 1명
- America (South and North) : 1명
- Africa and Australasia (Australia and New Zealand) : 1명

위와 같이 4개지역 (Geographical Zones)으로 부터 선출되는 5명의 부총재 이외에 1명의 6차석(Sixth Post) 부총재를 선출하여 모두 6명의 부총재가 부총재단을 형성하도록 되어있다. 6명의 부총재중 6차석 부총재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당시 총재의 출신지역(대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으로부터 부총재 후보를 지명받아 6차석 부총재 1명을 선출할수 있으나, 지리분포에 따라 선출된 부총재의 경우는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그 지역으로부터 부총재를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총재는 임원회의(Officers Meeting)의 멤버로서 총재를 보좌하여 ICOLD 회무집행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총재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to the President)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회무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 3)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 재무관(Treasurer)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에서 계약제로 선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임기는 계약조건으로 결정된다. 사무총장은 총재의 일반적인 지시에 따라 중앙사

무국의 회무를 처리하고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워크샵, 심포지움등의 개최를 준비한다. 한편, 재무관도 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사무총장이 겸직해 왔다. 재무관은 중앙사무국의 수입, 지출 등에 대한 회계업무 등 재무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다.

### 3. ICOLD 제72차 서울 연차회의와 부총재 선임

#### 3. 1 ICOLD의 제72차 서울 연차회의 개최

ICOLD가 해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연차회의(Annual Meeting)에서는 각종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및 행정 혹은 특별 위원회의 활동과 주최국이 주최하는 심포지움(Symposium), 워크샵(Workshop) 등을 통한 담 관련 기술주제에 대한 연구발표 및 토론 활동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일정에 가서는 집행위원회(Executive Meetings)가 개최된다.

집행위원회는 ICOLD의 최고 의결 기구로 ICOLD 임원과 회원국별 대표단(투표권자 1명 포함 각 4명)으로 구성되며, 기술위원회 및 행정·특별위원회(약 20여개)의 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집행위원회에서는 총재 및 부총재의 선출, 신규 회원국의 가입승인, 매년 개최되는 연차회의와 3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총회(Congress)의 개최도시 선정, 총회에서 발표·토론하게 될 기술주제의 선정, 예산안 심의, ICOLD의 세입·세출등

재무관련 사항과 기타 중앙사무국의 주요 행정 사항등에 대한 안건을 보고하고 토론하여 의결하게 된다. 한국 대담회는 2002년 9월에 Brazil의 수도 Brasilia에서 개최되었던 ICOLD 제70차 연차회의에서 제72차 연차회의를 2004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 희망한다는 의향서를 제출하여 ICOLD 제72차 연차회의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으며, 2년여의 준비 끝에 2004년 5월 16(일)~21(금) 기간 동안 서울 워커히 컨벤션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3. 2 부총재 피선

전술한 바와 같이 매년 개최되는 ICOLD 연차회의의 마지막 일정에 개최되는 집행위원회에서는 부총재 6명중 2명을 새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제72차 서울 연차회의에서는 유럽지역 부총재 1명과 6차석 부총재 1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ICOLD 운영규정 PART- I, Section D에서는 ICOLD 회원국중 1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에서 집행위원회 개최 3개월 이전에 부총재 후보에 대한 지명을 서면으로 중앙사무국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대담회는 제72차 연차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게 된 마당에 주최국의 이점을 십분 이용하여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될 부총재석 2석중 6차석 부총재 후보 1명을 한국대담회 회원중에서 지명키로 방침을 세웠고, 필자가 그 후보로 지명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필자는 1981년 스웨덴의 Stockholm에서 개최되었던 제49차 집행위원회

를 시작으로 2003년까지 22회에 걸쳐 ICOLD 연차회의에 참석하였고, 기술분과위원회 활동등을 통하여 ICOLD 참가자들 사이에 인지도가 있는 편이었으며 부총재 지명 절차를 위해서는 평소에 한국대담회와 친분을 두텁게해 왔던 2004년 당시의 스페인 대담회(Spanish 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 SPANCOLD)의 Luis Berga 회장(2006년~2009년 ICOLD 회장으로 활동)이 당시 ICOLD 사무총장 Mr. Bergeret에게 필자의 6차석 부총재 지명 제안서를 제출하였었다. 제안서 상의 필자의 ICOLD 공적에 대한 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981년 Stockholm 연차회의부터 2003년 Montreal 연차회의(Annual Meetings)까지 22회에 걸쳐 연차회의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활동
- 1982년 Rio de Janeiro 총회부터 2003년 Montreal 총회까지 8차례에 걸쳐 총회(Congresses)에 참석하여 활동
- 1997년 Florence 총회에서 Question74, 「Performance of Reservoirs」분과의 부의장(Vice Chairman)으로 발표회의 주재
- 1981년~2000년까지 ICOLD 기술분과 위원회인「저수지 퇴사(Sedimentation of Reservoirs)」분과위원회의 한국대담회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활동하여 ICOLD 기술보고서(Technical Bulletin 67) 출간에 기여
- 2001년~2003년까지 ICOLD 총재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to the ICOLD President) 위원으로 활동

- 22년간의 ICOLD 활동에 의한 공헌도를 인정받아 2003년부터 수여된 제1회 ICOLD Annual Award를 수여받고 ICOLD 명예회원으로 추대됨.
- 2004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ICOLD 72차 연차회의의 심포지움과 워크샵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2003~2004년 사이에 활동.

2004년 서울 연차회의의 집행위원회는 5월 20일~21일에 개최 되었으며, 5월 20일에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 신입부총재 선출이 있었다. 통상의 경우 부총재 선출에는 복수의 후보가 지명되어 경합을 벌여서 투표에 의해 과반이상의 득표로 선출되나 필자의 경우는 주최국의 이점을 배려해주기 위해서인지 다른 회원국으로 부터의 후보 지명이 없어서 단독 후보로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부총재로 선출되는 행운을 얻어 전임 6차석 부총재인 Baba(일본)의 뒤를 잇게 되었다.

한편, 2004년 서울 연차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었던 또 한명의 유럽지역 부총재도 이태리 대담회가 지명한 Hughes(영국)가 단독 후보로 추천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럽지역 부총재도 역시 투표없이 선출되어 전임 유럽지역 부총재인 Lafitte(스위스)의 뒤를 승계하게 되었다.

#### 4. ICOLD 부총재 임기중의 활동 실적

ICOLD 부총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총재를 보좌하여 임원회의(이사회)를 통해 ICOLD의 각종 회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총재 자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회무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에 응한다. 또한, 연차 회의나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총재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따라서, 필자가 부총재로 활동한 기간인 2004년~2007년 (3년)간의 활동 내용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2003년~2006년 기간동안 ICOLD 총재를 역임한 Viotti총재(브라질)는 ICOLD 회무 집행의 개선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여 ICOLD 임원진이 매년 1~2회에 걸쳐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중앙사무국(Central Office)에서 임원회의를 할수 있도록 한바 있다.

#### 4. 1 2004년~2005년 활동 실적

1) 2005년도 제1차 이사회(Board Meeting) 참석 토의

- 날짜 : 2005. 2. 17~2. 18 (2일간)
- 장소 : ICOLD 중앙사무국 (151 Haussmann Bd, Paris)
- 참석자 : Viotti(총재), Abadjiev, Hughes, Jia, Yoon, Roberts, Vergeni(이상 부총재), Bergeret(사무총장/재무관)

2) 제1차 이사회 심의안건 토의 내용

가. ICOLD의 다년 전략계획(Multi-year Strategic Plan)의 심의

- ICOLD의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①대내외적 정보교환 수단의 개선, ②개발도상국에 대한 ICOLD의 지원강화, ③ICOLD 활동 영역

의 확대, ④댐의 편익과 부작용에 대한 국제적 토론에 적극 참여

- ICOLD의 경영개선 사업으로 ①지나치게 관료적인 ICOLD의 정관 및 운영 규정의 대폭적인 개정, ②ICOLD 운영 방법의 전향적 개선 모색
- ICOLD의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 노력을 위해 ①수입의 개선, ②지출의 감소 대책 모색

나. 73차 집행위원회 (2005.5.1~5.6/Tehran) 관련사항 심의

- ICOLD Membership : 신규가입 예정국은 Vietnam과 Latvia, 제명 예정국은 Hungary
- 부총재 선출 후보 : 미주지역은 Walz(USA), 아프리카·호주지역은 Nombre(Burkina Faso)와 Cummins(Australia)

- 2004년도 결산 및 2006년도 예산(안) 검토

- 총재 자문위원회의 보고 :
  - ① 연차회의와 총회의 적정 개최 일자수
  - ② 총재의 임기
  - ③ 부총재의 역할과 임무

- 2007년 연차회의 (75차 집행위원회) 준비상황 보고(St.Petersburg/Russia)

- Technical Committees Activities (21 Committees)

- Honorary Award Candidate : Victor de Mello(Brazil)

다. 22차 Congress (2006. 6/Barcelona) 관련사항

- 「Question 87 : Flood and Drought Evaluation and Management」의 Vice Chairman으로 영남대 이순탁 교수 추천하여 확정

라. ICOLD 출판물 발간 심의

- Newsletter, Technical Bulletin, Annual Report, Annual Activity Report (ICOLD National Committees), ICOLD Directory

3) 기타 토의사항 (사무총장 Mr. Bergeret이 재계약 문제)

- Mr. Bergeret의 3년 계약 임기는 200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므로 2005년 5월 개최되는 Tehran 집행 위원회에서 계약 연장안이 가결되어야 하나,

- 그동안 사무총장 Mr. Bergeret의 ICOLD 회무수행에 있어서의 능력과 성실성등에 대한 Viotti 총재의 평가가 좋지않아 총재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것으로 결심한 상태. 이사회에서 장시간 토의한 결과 새로운 사무총장을 영입하는 방향으로 결론.

- 새로운 사무총장 후보로는 프랑스 전력회사 (EDF) 출신인 Mr. de Vivo (프랑스)로 결정.

4) 제73차 연차회의 (2005. 5. 1~5. 6/Tehran) 참석

- Workshop : 「Seismic Aspects of Dams」 (May 3)
- Symposium : 「Uncertainty Assessment in Dam Engineering」(May 5)
- 73rd Executive Meeting (May 6)

신임부총재 선출 : 아프리카-오스트랄리아 지역 Nombre(Burkina-Faso), 미주지역 Walz (미국)

#### 4. 2 2005년~2006년 활동 실적

1) 2006년도 제1차 이사회(Board Meeting) 참석 토의

- 날짜 : 2006. 4. 20~4. 21(2일간)
- 장소 : ICOLD 중앙사무국 (151 Haussmann Bd, Paris)
- 참석자 : Viotti(총재), Abadjiev, Hughes, Jia, Yoon, Nombre, Walz(이상 부총재), de Vivo(사무총장/재무관)

2) 제1차 이사회 심의 안건토의 내용

- 가. 중앙사무국(Central Office) 행정관련 사항
- ICOLD 총재단의 행동 강령 (Code of Conduct) 제정안 채택
- 프랑스 전력공사(EDF) 소유인 ICOLD 중앙사무국 사무실 (168m<sup>2</sup>) 임대계약 완료 (2008년까지 월 1,800 유로의 임대료)

- 건당 25,000유로 이상의 구매 및 지출시는 사무총장이 총재의 결재를 받기로 함.

- 현재 운영중인 총재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to the President)는 2006년부터 폐지하고 Constitutional Committee와 Financial and Advisory Special Committee로 분리 운영하기로 함. Financial and Advisory Special Committee의 위원장으로 필자가 선임됨

나. 제4회 세계 물 포럼 (Mexico) 참가보고

- 세계 물 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의 Board of Governors 선거에 de Vivo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ICOLD의 Viotti 총재가 Governor의 일원으로 선출됨



- ICOLD 미주지역 부총재 Mr. Walz가 "Water Infrastructure Session"에서 ICOLD의 활동을 소개

다. ICOLD 발전전략

- 총재단 구성원의 임무와 기능 재정립
- ICOLD 정관의 일부 개정초안 작성 (Constitutional Committee의 Dr. Rissler(독일)과 Dr. Roberts(남아공)이 초안작성 및 검토) 향후 정관위원회에서 토의 확정예정
- 개발도상국 댐 기술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 (Turkey, Morocco, Sweden이 훈련비 공여)
- 타 국제기구와의 전략적 제휴 (IWRA, ICID, IHA등)
- ICOLD 시상 확대 (현행 Annual Honorary Award 뿐만 아니라 Award for Young Engineers 시상제도 추가 개설)

라. ICOLD 홍보 강화 계획

- New Website 구축
- Annual Activity Summary 작성 (National Committees)
- 각종 Media on ICOLD 홍보 강화
- 「Pamphlet for Children」제작배포 예정

마. ICOLD 발간물

- ICOLD Newsletter, Bulletins, Annual Report, ICOLD Directory (매3년 발간)

바. 기술위원회 활동관련 사항

- 2005년말 현재 기술위원회수는 21개
- 위원회별 활동기간의 연장건 검토
- 신설위원회 검토 (Constitutional Committee, Financial and Advisory Special Committee, Groundwater Dams Committee)

사. 재무관련 사항

- 국제기구 (UN, UNESCO, WB등)로 부터의 보조금 수혜방안
- 회원국의 연회비 체납분 징수방안 강구
- ICOLD 회계처리 방식의 개선

3) 제74차 연차회의 및 제22차 총회 (2006. 6.15~6.23/Sitges-Barcelona) 참석

- Symposium : 「Dams in the Societies of the XXIst Century」 (June 18, Barcelona)
- 22nd Congress (June 19~23, Barcelona) Question 84 : Technical Solutions to Reduce Time and Costs in Dam Design and Construction
- Question 85 : Management of the



ICOLD 제74차 집행위원회에서의 총재단 (June 17, 2006 /Dolce Conference Center, Sitges, SPAIN)  
좌로부터 Walz(부총재/미국), Hughes(부총재/영국), Jia(부총재/중국), Viotti(총재/브라질), de Vivo(사무총장/프랑스), Abadjiev (부총재/불가리아), Yoon(부총재/한국), Nombre (부총재/Burkina Faso)

- Downstream Impacts of Dam Operation
- Question 86 : Safety of Earth and Rock-fill Dams
- Question 87 : Flood and Drought Evaluation and Management
- 74th Executive Meeting (June17) 신임 총재 선출 : Berga (스페인) 신임 부총재 선출 : 유럽지역 Tardieu (프랑스) 6차석 Maurer (브라질)

4. 3 2006년~2007년 활동 실적

1) 2007년 제1차 이사회(Board Meeting) 참석 토의

- 날짜 : 2007. 1. 11~1. 12(2일간)
- 장소 : ICOLD 중앙사무국 (151 Haussmann Bd, Paris)
- 참석자 : Berga(총재), Tardieu, Hughes, Maurer, Yoon, Nombre, Walz(이상 부총재), de Vivo(사무총장/재무관)

2) 제1차 이사회 심의안건 토의 내용

- 가. 기술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검토
- 24개 기술 분과 위원회중 10개 위원회는 2007년 6월 연차회의에서 임기가 종료되나 5개 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
- 홍보 및 교육위원회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는 새로운 과업지시서로 신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예정
- 신규 위원회의 설치

① Planning Processes for Water and Energy

- Projects
- ② Ethics
- 기술분과위원회에 멤버들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조치 필요

- 나. ICOLD 기술보고서 (Bulletins)와 기타 출판물
- 「Dams and World Water」 by The Committee on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Pamphlets for young adults)
- 5 more Technical Bulletins (The Role of Dams, Code of Ethics, Shared Rivers, etc) to be Published.

다. Website

- 2006년 8월부터 새로운 Website 개설 (2006년 9월~12월 사이 website 방문객 약 5,000명)

라. Congress Proceedings and Papers

- ICOLD Congress에 제출되는 논문의 준비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제정 예정
- CD ROM 형태의 Proceeding으로 논문집 제작

마.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

- Task Force in Hydropower (Africa) (Declaration on Hydropow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International Water Liasion Committee (IWALC)
-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EEA)
- World Water Forum V (WWF-5)
- UN/DDP (Dam Development Program)

바. ICOLD의 재정현황 보고

- ICOLD의 재정 및 자문 특별위원회 (Financial and Advisory Committee)의 위원장인 필자 (Yong-Nam YOON)는 2006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보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음.

수입 : 840,471 Euro

지출 : 566,117 Euro

차기이월 : 274,354 Euro

- 2006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차기 이월금은 예년에 비해 월등이 컸으며 이는 2006년 Barcelona 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인한 것으로 판단 했으며, ICOLD 재정상태가 양호하므로 2007년 회원국의 연회비는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것으로 건의하여 결정

- 2008 회계연도의 예산은 다음과 같은 규모로 결정

수입 : 489,000 Euro

지출 : 467,220 Euro

차기이월 : 21,780 Euro

사. ICOLD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예정 (2008년, 프랑스 파리)

3) 제75차 연차회의 (2007. 6. 24~6. 29)/St. Petersburg) 참석

- Workshop : 「Dams and Hydropower in Russia and in the CIS Countries」, June 25

- Symposium : 「Dam Safety Management. Role of State,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in Designing, Constructing and Operating Large Dams.」, June 27

- 75th Executive Meeting (June 29)

신임 부총재 선출 : 유럽지역 Bartsch (스웨덴)

아세아지역 Matsumoto (일본)

4) Asia-Pacific Group Session 개최 (June 25)

- 개최사 : Chairman : Yong-Nam Yoon (A-P Group)

- 축사 : CHINCOLD and JCOLD

- 기조연설 : 유럽지역 부총재 : A. Hughes

「Incidents and Accidents-What can we learn?」

- 주제 : 「Recent Developments in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Dams in the Asia-Pacific Region」, June 25

5. 결언

ICOLD 부총재는 ICOLD 이사회(Board Meeting) 혹은 임원회의(Officers Meeting)의 멤버로서 총재를 보좌하여 사무총장과 함께 ICOLD의 주요회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여 최고 의결 기구인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ICOLD의 모든 회무를 추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ICOLD 커뮤니티에서 가장 존경받는 몇 사람에게 속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봉사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ICOLD 부총재가 되기 위해서는 ICOLD 내에서 전문지식이나 대인관계, 인격등에서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 ICOLD 활동을 통해 평가를 받을수 있는 기회는 ICOLD 의 공식적인 기술 및 학술발표 활동을 통해서이다. 즉, ICOLD의 기술분과위원회 및 행정·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지

명되어 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매년 연차회의시 개최되는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이나 총회시 주제(Question)에 관련되는 연구 논문 발표등을 통해서이다. 뿐만아니라, 연차회의나 총회 전후 며칠간 주최국이 주선하는 학습여행(Study Tour)을 통해서 많은 회의 참석자들과 교분의 기회를 많이 갖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대담회의 경우 ICOLD 연차회의나 총회에 참가하는 회원의 수는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대담회장을 위시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약간명과 건설회사와 용역회사로 부터의 약간명, 그리고 대학교수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회의 참가자중 한국대담회장 및 수행원 약간명을 제외한 여타 참가자들은 고정적으로 매년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참가가 대부분이어서 ICOLD 활동의 지속적인 성과에 대한 이해의 축적이 어렵다.

ICOLD 활동중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 받고있는 기술분과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서 지명된 국가 회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명된 회원국가가 개인회원을 추천하여 기술분과 위원회가 구성되며, 분과 위원장도 집행위원회에서 임명된다. 기술분과 위원회는 통상 5~6년의 활동기간을 허가 받아 주어진 과업지시 사항의 범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그 연구 결과를 Technical Bulletin 으로 발간하게 된다. 이 연구기간 동안 분과위원회 참가자들은 개인적인 전문성과 인격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며 ICOLD운영을 맡을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대담회의 경우 현재의 ICOLD 기술분과 위원회 약23개중 약11개 분과위원회에 참가 자격을 부여 받아 개인회원이 결정되어 있으나 매년 회의 참가자수가 많지 않을뿐 아니라 회의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되지 못하고 일회성 참여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어서 해당 기술분과위원회 활동에의 공헌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ICOLD 집행위원회에서 배정 받는 기술분과 위원회 위원을 한국대담회가 지명할때에는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ICOLD 연차회의에 연속적으로 참가하여 해당 기술분과 위원회에 참석 가능한 재정력을 가진 회원(소속기관 예산이나 자비)을 추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ICOLD 부총재가 될 수 있는 길은 오랜기간 동안 연속해서 ICOLD 연차회의에 참석하여 기술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위원회의 과업수행에 공헌하는 한편,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의 논문발표와 진행에 참여하는등 ICOLD 커뮤니티에서의 존재감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개인적인 Seniority 또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25년여 기간동안 ICOLD 연차회의에 참석하여 활동하였고, 2005년~2007년(3년) 동안은 ICOLD 6차석 부총재로 활동할수 있는 영광을 안겨준 한국대담회에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한국대담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경축드리는 마음이다. 아무쪼록, 우리 한국대담회의 장래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길 기원하는 바이다.